

도서관 목록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에 관한 연구*

- B시의 대학도서관들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Managing of Headings in Library Cataloging: On the Basi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B City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서양서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
| II. 표목에 관한 규칙의 변천과정 | 3. 비도서자료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
| 1. KCR의 표목에 관한 규칙 변천과정 | IV. 표목 취급의 문제점과 제안 |
| 2. AACR과 NCR의 표목에 관한 규칙 변천과정 | 1. 기본표목 |
| III. 표목 취급의 실태 | 2. 표목의 형식 |
| 1. 동양서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 3. 도서기호법의 문제 |
| | V. 결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편목 실무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인 KCR4는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규칙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편목 실무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간에 기본표목의 취급에 관한 통일성이 없고, 통일표목의 형식으로 표목을 작성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적용할 규칙이 없음으로써 그 형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KCR4의 방침에 따라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록레코드를 통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KORMARC포맷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표목 형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목록규칙에 관한 국제적 표준의 변화 추이에 따라 KCR4의 개정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목형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표목, 기본표목, 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ABSTRACT

This is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managing of headings in library cataloging. KCR4, the standard rules for the library cataloging in Korea, has no rules for the main entry headings and uniform headings. But the cataloging records are not standardized because a lot of libraries in Korea use the main entry headings and uniform headings yet. A structural revision of KORMARC is required in order that all library follow the rules on the KCR's main entry headings. And the rules for uniform heading used until KCR4's policy about the heading is decid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are needed.

Keywords: Headings, Main Entry Headings, Cataloging Rules, KCR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2009AA023)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thdoh@deu.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3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도서관 목록의 기능은 크게 문헌의 검색, 식별, 소재 지시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목록규칙에서는 전통적으로 검색과 식별기능을 갖는 표목과 기술의 규칙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재지시 기능을 갖는 청구기호의 작성에는 분류법과 도서기호법 등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출판물의 양적 증대와 유통의 확대는 국제적 서지통정(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의 필요성을 가져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록규칙과 서지레코드의 국제적 표준화가 선결 과제가 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하 IFLA라 함)은 1961년 파리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이하 ICCP라 함)를 통하여 표목부의 통일을 이루었고, 1971년부터 제정 공표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라 함)을 통해서 기술부의 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목록의 국제적 표준화에 공헌하였다.

영미계 목록체계의 전통은 파니찌의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 이래 영미규칙(Anglo-American Code), ALA목록규칙을 통하여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계보를 이어왔으며, ICCP를 거치면서 저자명기본표목에 의한 편목체계가 국제적 표준으로 확산되었다. ICCP는 원칙성명에서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 저록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다. 기본저록의 표목은 저자명으로 하고 기본표목으로 채택할 저자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표목의 형식은 통일된 형식을 취하고 기타 형식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 의해 자국의 목록규칙에 도입되었으며, 『한국목록규칙』(이하 KCR이라 함)이나 『영미목록규칙』(이하 AACR이라 함)을 비롯한 제 목록규칙들도 저자명기본표목원칙과 통일표목의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

ISBD의 제정과 더불어 기술부만으로 저록을 작성하고 표목은 기술부와 독립하여 접근점의 기능을 갖는 기술단위카드방식의 목록체계가 제기되었으며 기술단위카드방식의 목록체계에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한편 목록의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카드목록 체계에 비하여 표목이나 저록들 간의 상호 연결이 훨씬 용이하게 되어 통일표목 방식에 의한 전거통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제기 되었다.

표목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다양한 견해들은 KCR과, 그리고 KCR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AACR, 『일본목록규칙』(이하 NCR이라 함)의 표목에 관한 규칙의 차이에서도 그 난맥상을 엿볼 수 있다. 이들 목록규칙들은 기본표목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KCR4는 기본표목의 선택에 관한 규칙은 물론이며 통일표목이나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까지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AACR이나 그 후속 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이하 RDA라 함) 그리고 NCR과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2003년 KCR4가 간행된 후 현재까지 도서관 현장에서는 기본표목의 채택 여부나 표목의

형식에 관한 KCR4의 방침이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도서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칙과 규정으로 표목이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전히 기본 표목을 작성하는 도서관, 통일표목의 형식을 취하는 도서관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에 적용하는 규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작성되고 있는 목록레코드에서 표목부는 특히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목록에 있어서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도서관 현장의 편목 실무에서 표목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는 조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편목에서 표목 취급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과 공간적 제한 때문에 조사 대상의 범위를 B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의 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한정된 지역의 실태를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목록에서 표목 취급의 통일성 결여와 무원칙 현상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I. 표목에 관한 규칙의 변천과정

편목작업은 목록규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편목작업에서 표목의 취급이 통일되지 못한 것은 목록규칙, 특히 표목에 관한 규칙의 다변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연구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KCR과 AACR, 그리고 이 규칙들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 NCR의 표목에 관한 규칙을 살펴본다.

1. KCR의 표목에 관한 규칙 변천과정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박봉석의 『朝鮮東書編目規則』에서는 서명목록을 사무용 목록의 주목록(기본목록)이라고 하였으며 서명목록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기술사항을 완전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나머지 목록에서는 기술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따라서 기본표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朝鮮東書編目規則』은 서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KCR이 발행되기 전까지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채택한 2종의 목록규칙이 편찬되었다. 그 하나는 고재창의 『韓銀圖書編目法』이며 다른 하나는 박희영의 『東書編目規程(草)』이다.

『韓銀圖書編目法』은 그 서문에서 “요즘 전후의 일반 목록학계의 대세는 저자기본기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도서관 어느 저자의 소산이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어느

1)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改正[版](서울 : 國立圖書館, 1954), pp.2-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서명의 책 보담 어느 저자가 쓴 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표목의 형식에 대하여는 “본명을 채기하고 성부터 기입한다. 본명이 도서에 서명되어 있지 않거나 불비한 것은 조사하여 판명되면 기입한다”²⁾고 하였으며, 표목의 표기는 “동서의 저자 및 건명의 표목은(본래의 형태로 기재한 후 그 위에) 로마자로 전음을 철(번자)하여 표기한다”³⁾고 하였다. 이와 같이 『韓銀圖書編目法』은 표목의 형식을 대표형식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 배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표목은 원칙적으로 로마자로 번자하였다.

박희영의 『東書編目規程(草)』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원칙에 대하여 “도서에 기재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저자명을 표목으로 채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명을 표목으로 또는 특수한 표목을 세워서 채기하는 때가 있다”⁴⁾고 하였다. 표목의 표기에 관한 원칙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카드의 예에 따르면 표목은 대표형식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 표기는 서지 정보원에 기재된 언어를 우선하고 서양 인명의 경우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1964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KCR1이 간행되었으며 이 규칙에는 ICCP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었다.⁵⁾ 기본표목에 대하여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그 저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저자명을 표목으로 한다”⁶⁾고 하였으며 저자가 표목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경우 서명이나 통일서명을 표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목의 형식에 대하여는 언제나 통일표목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이름으로 부터는 참조를 하였다.⁷⁾

표목의 표기 방식에 관해서는 1) 표목의 형식은 한글로만 한다. 2) 외국인명, 서명 등은 번자표목으로 한다. 3) 2)의 경우에는 번자 표목만을 쓴다(즉 한정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성과 이름 사이에는 반드시 콤마를 사용 한다⁸⁾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후 KCR은 수정판과 수정판 재쇄가 발행된 바 있으나 표목에 관한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ISBD가 간행된 후 KCR3이 발행되면서 기본표목에 관한 방침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KCR3의 편찬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에 대한 재평가와 국제적 목록 이론의 추이를 감안하여 이 KCR3은 우리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흡사한 서지기술을 유니트 카드로 삼아 목록 기입을 하는 방식, 즉 도서 식별

2) 高在稔 編, 韓銀圖書編目法(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1954), p.29.

3) 상계서, p.48.

4) 박희영, 東書編目規程(草)(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55), p.3.

5) 서문에서 “ICCP에서 결정된 여러 원칙들은 우리들 초고 작성에 전적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원칙을 충분히 참작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였다.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4), p.ii.

6) 상계서, p.1.

7) 상계서, p.33.

8) 상계서, p.iii.

의 구실을 하는 기술부와 검색의 실마리 구실을 하는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키는 목록 기입방식을 채용하였다. 이것이 KCR1과 KCR2에 비해 KCR3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⁹⁾

이러한 기술단위카드방식의 목록체계에서는 표목을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표목은 동일한(등가의) 것으로 취급되며 이와 같은 목록체계는 1977년 NCR 신판 예비판¹⁰⁾에서 시도된 바 있었다.

KCR3은 그 편찬 보고에 따르면 본래는 기술과 표목과 배열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제정할 예정이었다.¹¹⁾ 또한 표목올림지시편의 ‘표목올림지시어의 문자와 형식’에서는 “표목올림지시에 쓰이는 문자와 형식은 표목편에서 규정한 표목의 그것과 똑같이 취한다”¹²⁾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KCR3은 기본표목은 채택하지 않았으나 표목의 형식은 통일표목으로 하려 했던 것이 확실하다.

KCR3이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서 2003년 KCR4가 발행되었다. 그 이유를 편찬보고에서는 1) KCR3이 단행본이나 고서와 같은 인쇄매체로 기술대상 자료를 제한한 것, 2) 기계가독목록의 출현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목의 선정과 형식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두 가지¹³⁾로 들었다. KCR4의 표목과 관련된 방침을 그 편찬보고에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목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서지데이터의 수록방식과 저록의 배열 방식이 전통적인 인쇄(카드) 목록의 구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저록의 배열도 표목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더욱이 저록의 검색과정에서는 접근점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표목이란 개념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⁴⁾
-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 주된 원인은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절대 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또 기계가독목록에서는 서지자료에 대해 대부분 단일 저록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목록의 기능 수행에서 다른 접근점과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본 목록규칙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¹⁵⁾
-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 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특정 표목에

9)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 記述·標目올림指示篇, 3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3), p.6.
 10) 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 新版 豫備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77), p.5.
 11)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 記述·標目올림指示篇, 3版, 上계서, p.7.
 12) 상계서, p.90.
 13)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p.vii.
 14) 상계서, p.ix.
 15) 상계서, p.ix-x.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¹⁶⁾

한편 목록의 구성요소는 저록과 참조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참조에 대하여는 “목록에서 관련된 접근점간을 연결하기 위한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명 목록에서 하나의 주제명을 특정 형식의 주제명으로 연결하기 위한 ‘보라’ 참조, 그리고 관련된 접근점 상호간을 연결하기 위한 ‘도보라’ 참조가 있다”¹⁷⁾고 하였다. 목록의 종류는 접근점의 유형에 따라 1) 표제목록, 2) 저자목록, 3) 주제명목록, 4) 분류목록, 5) 발행처목록, 6) 표준번호목록, 7) 기타목록¹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 따르면 KCR4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표준번호 및 수입조건사항에 이르는 8개의 기술사항만으로 저록을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본표목의 선정에 관한 규칙은 물론, 표목의 형식이나 표기 방식에 대한 일체의 규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접근점의 유형에 따라 목록의 종류를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항목들이 검색어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검색어의 통제방식에 대하여는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기법’을 사용한다는 설명 외에 보다 구체적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다.

2. AACR과 NCR의 표목에 관한 규칙 변천과정

가. AACR

1967년 미국도서관협회와 영국도서관협회, 캐나다도서관협회의 협력으로 출간된 AACR1은 I부 도서와 준도서의 기본표목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 II부 기술, III부 비도서자료 편목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AACR1의 표목에 관한 규칙은 ICCP의 원칙 성명에 기초를 두었다. 그 서문에서 “이 목록규칙이 복수 기입 목록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기본표목을 부출표목으로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¹⁹⁾하여 AACR1은 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임을 분명히 하였다. AACR1의 기본표목 선택 원칙은 다음과 같다.²⁰⁾

- 1) 기본기입은 반드시 저자나 또는 한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저자 아래로 하여야 한다.
- 2) 저자 또는 주저자가 없고 편자가 그 저작의 존재를 위하여 주로 책임을 가질 경우에는 반드시 편자 아래 기입하여야 한다.

16) 상계서, p.x.

17) 상계서, p.4.

18) 상계서, pp.3-4.

19)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英美目錄規則, 張一世, 金斗植 共譯, 北美版 改正版(서울 : 景仁文化社, 1974), p.2.

20) 상계서, pp.9-10.

- 3) 여러 저자에 의한 저작을 모은 것일 경우 표제지에 편찬자명이 나타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편찬자명 아래 기입하여야 한다.
- 4) 저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결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서명 아래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AACR1은 그 서문에 “목록 작업에서 이 구별(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별)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므로, 그 목록에 모든 필요한 기입이 마련되어 있고 또 단위카드 제도를 사용할 경우 하나하나의 기입에 주어진 기술사항도 동일한데 왜 필요한가를 질문 받을 수 있다”²¹⁾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부터 이미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목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단어에 관한 모든 기입이 통일표목 아래 나타나거나 또는 참조에 의하여, 관련되는 복수 기입의 알파벳순 목록 작성에 합치하도록 만들어졌다”²²⁾고 하였으며 표목의 종류를 개인명, 단체명, 통일서명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참조에 대하여는 “개인명, 단체명 또는 한 저작의 서명이, 표목이나 또는 통일서명으로 쓰이지 아니한 형식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당연히 알려지리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형식에서 채택된 형식으로 참조 한다”²³⁾라고 하였다. 즉 저자나 서명 등 모든 유형의 표목에 대하여 그 형태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표목은 그 대표 형식으로 표기(통일표목)하고 기타의 형식으로 부터 참조에 의해 대표 형식으로 안내되도록 하였다.

1978년 기술부를 ISBD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AACR2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AACR2도 표목부에 관한 한 “1판에서 밝힌 바대로 1961년의 ICCP 원칙과 일치하도록 한다”²⁴⁾는 JSCAACR(AACR 합동조정위원회)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AACR2는 2장에서 표목, 통일표제 그리고 참조 등 표목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2장의 접근점의 선택(Choice of access points)에 관한 절에서 “이 절의 규칙은 목록에서 그 아래 서지기술이 기입되는 접근점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며, 이 규칙들은 이들 접근점들 중 하나를 기본표목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출표목으로 하도록 규정 한다”²⁵⁾고 함으로써 AACR2가 기본표목원칙의 목록규칙임을 밝혔다.

그러나 AACR2 출판 당시에도 기본표목원칙에 대한 이의는 계속 제기되었으며, 이미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의 구분을 없앤 도서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CR2가

21) 상계서, p.2.

22) 상계서.

23) 상계서, p.175.

24)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p.vii.

25) *Ibid.*, p.283.

기본표목원칙을 택한 경위와 기본표목원칙을 택하지 않는 도서관에서의 AACR2 적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Part II의 규칙(표목에 관한 규칙)은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하나의 기본표목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부출표목에 의해 보충되어진다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 등가표목(alternative heading)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조사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 규칙에는 삽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이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21장(Choice of access points)은 특정한 예에서 요구되는 모든 표목을 결정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²⁶⁾

이후 AACR2는 2002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중간 개정이 있었으나 기본표목에 관한 이 문구는 바뀌지 않았으며 기본표목에 관한 1978년판의 방침은 변화가 없다. 표목부의 나머지 부분은 개인명, 지명, 단체명 표목, 그리고 통일표제, 참조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규칙을 통하여 통일 표목의 형식을 규정하고 기타의 형식으로부터는 채택된 통일표목으로 참조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웹 자원의 양적 증대로 야기된 도서관 목록 환경의 변화는 AACR2 개정 논의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9월 영미목록규칙개정합동조정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 이하 JSC라 함)에 의해 'New Edition Planned'가 발표됨으로써 정식으로 표명되었다.²⁷⁾ 이후 AACR3의 1부의 초안이 검토된 후 2005년부터 개정판의 이름을 RDA로 칭하였다. 이후 RDA는 AACR2 개정판을 대체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JSC에 의해 초안 작성과 검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RDA 설계의 핵심적 요소는 IFLA에서 개발된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에 대한 개념 모형인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al Records)과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의 개념 모형으로 이들은 RDA의 기초적 틀이 되었다.²⁸⁾ RDA는 전자정보자원을 포괄하는 정보자원의 기술과 발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2010년 프린트판과 온라인으로 배포되었다.

RDA에서는 표목(heading) 대신 접근점(access point)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접근점은 종래의 통일표목에 해당하는 우선 접근점(preferred access point)과 참조에 해당하는 다른 형태의 접근점(variant access point)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RDA에서는 기본기입이라는 용어는 폐지하였으나

26) *Ibid.*, p.2.

27) 古川肇, 動向レビュー: RDA全體草案とその前後, p.1, <<http://current.ndl.jp/ca1686>> [cited 2010. 12. 13].

28) 박진희, "RDA의 제정동향 및 내용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2009. 03), p.5.

저작을 표현하는 우선 접근점을 (1) 저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자의 우선 접근점과, (2) 저작의 우선되는 표제를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개념은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²⁹⁾

나. NCR

NCR 1965년판은 ICCP의 원칙에 따라 저자명 기본표목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ISBD의 발행과 더불어 일본도서관협회는 NCR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1977년 NCR 신판 예비판을 간행하였다. 신판 예비판에서는 기본표목원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단위카드방식을 제시하였다.

기술단위카드방식이란 도서의 기술을 표목과 무관하게 완결하고 필요한 표목을 지시하고, 그 목록카드를 복제하여 지시된 각종 표목 아래 목록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복수기입제 아래서는 기본기입원칙의 제 결점을 해소하고 기본기입원칙의 장점은 거의 유지할 수 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는 단일 저록의 목록을 위해서는 하나의 표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단일 저록의 목록을 위한 표목 선정표(복수 저록의 기본표목 선택 원칙에 해당)를 부칙으로 두고 있다.

2006년에 NCR 1987년판 개정3판이 발행되었다. 여기서는 기술단위방식에 대하여 “표목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가독목록에 더욱 적절한 방식”³¹⁾이라고 하여 자동화된 목록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단일 저록의 목록을 위한 표목 선정표도 여전히 부칙으로 첨부하고 있다.

NCR 2006년판의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에서는 표목의 종류, 표목의 선택 및 표목의 형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³²⁾

- 표목의 종류 : 표제표목, 저자표목, 건명표목, 분류표목.
- 표목의 선택 : 원칙적으로 기술의 본체가 되는 서지수준의 서지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서지수준의 서지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 표목의 형식 : 통일표목. (표제표목과 분류표목을 제외한) 표목은 저자명 전거과일, 주제명표목표, 주제명전거과일에 정하여진 형식, 즉 통일표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목의 표시방식 : 표제 저자명 및 건명표목은 일본자료의 경우는 히라가나로 서양자료는 로마자로

29) 古川肇, 전계서, p.3.

30) 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전계서, p.5.

31) 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改訂3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2006), p.7.

32) 상계서, pp.314-315.

표시한다. 분류기호는 소정의 기호로 표시한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2006판 NCR에는 표제표목, 저자표목, 건명표목, 분류표목, 통일표제표목 등 표목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Ⅲ. 표목 취급의 실태

도서관 현장에서의 표목 취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B시의 14개 4년제 대학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방문, 또는 편목 담당자와 전화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관의 목록을 실제로 검색하여 확인하였다.

1. 동양서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동양서 편목에서 도서관별 기본표목의 채택 여부를 포함한 표목의 취급 실태, 사용 목록규칙은 <표 1>과 같다.

<표 1> 동양서 편목에서 기본표목의 채택 여부와 표목의 취급 실태

도서관	기본표목 채택 여부			표목형식 결정규칙		전자파일		목록규칙				MARC 포맷
	채택함	채택하지 않음	적용 규칙	KCR1.2	기타	있음	없음	KCR4	KCR3	KOR기	KCR1.2	KOR
A	○		관례		관례		○	○				○
B	○		K2	○		○				○		○
C	○		K1	○			○				○	○
D		○			관례		○	○				○
E	○		관례		관례		○		○			○
F		○			관례		○	○				○
G		○			관례		○	○				○
H	○		관례		관례		○		○			○
I		○			관례		○		○			○
J	○		K2	○			○				○	○
K	○		관례		관례		○	○				○
L	○		K2	○		○		○				○
M		○			관례		○	○				○
N	○		관례		관례		○		○			○
계	9	5		4		2	12	7	4	1	2	14

* 약어 : K는 KCR, KOR은 KORMARC, KOR기는 KORMARC기술규칙.

〈표 1〉에 의하면 14개 도서관 중 2개 도서관은 목록규칙으로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구비한 KCR1이나 KCR2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2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이 없는 KCR3이나 KCR4, 혹은 KORMARC기술규칙을 사용하였다.

동양서 편목에 14개 도서관 중 9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으며 5개 도서관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표목을 채택한 9개 도서관 중 7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KCR3이나 KCR4, 혹은 KORMARC기술규칙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들 중에서 기본표목의 선택에 적용하는 규칙으로 KCR1이나 KCR2를 사용하는 곳은 4개 도서관, 나머지 5개 도서관은 특정 규칙이 없고 단순히 해당 도서관의 관례에 따라서 기본표목을 선택하고 그 형식을 정한다고 하였다.

기본표목의 선택 규칙으로 KCR1이나 KCR2를 사용하는 4개 도서관은 표목의 형식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고 답하였으며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도서관들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도서관 모두는 자관의 관례에 따라 표목의 형식을 정한다고 답하였다.

전자통제에 대하여는 14개 도서관 중 2개 도서관이 자관의 전자파일을 작성하여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나 나머지 12개 도서관은 전자파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참고로 MARC포맷은 14개 도서관 모두가 KORMARC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2. 서양서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서양서 편목에서 기본표목 채택 여부를 포함한 표목의 취급 실태, 사용 목록규칙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14개 도서관 중 12개 도서관은 목록규칙으로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을 구비한 AACR과 KCR1을 사용하고 있고(AACR 11개관, KCR1 1개관), 2개 도서관은 기본표목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이 없는 KCR3을 사용하였다.

서양서의 편목에서 14개 도서관 중 11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으며 3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는 11개 도서관 중 기본표목 채택 규칙으로 AACR2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6개관, KCR1을 사용하는 도서관은 1개관 나머지 4개관은 관례에 따른다고 답하였다.

기본표목에 관한 규칙이 없는 KCR3을 사용하는 2개 도서관 중에서도 1개관은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표목의 선택 규칙은 관례에 따른다고 하였다. 목록규칙으로 AACR2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도 3개 도서관은 기본표목의 선택을 AACR2에 의하지 않고 관례에 따른다고 대답하였다.

〈표 2〉 서양서 편목에서 기본표목 채택 여부와 표목의 취급 실태

도서관	기본표목 채택 여부			표목형식 결정규칙			전거파일		목록규칙			MARC 포맷	
	채택함	채택하지 않음	적용 규칙	KCR1	AACR 1.2	기타	있음	없음	AACR2	KCR3	KCR1	KOR	US
A	○		A2		○			○	○				○
B	○		A2		○		○		○				○
C	○		K1	○				○			○		○
D		○				모름		○	○				○
E	○		관례			관례		○		○			○
F	○		A2		○			○	○				○
G		○				관례		○	○				○
H	○		관례			관례		○	○				○
I		○				관례		○		○		○	
J	○		A2		○			○	○				○
K	○		관례			관례		○	○				○
L	○		A2		○			○	○				○
M	○		A2		○			○	○				○
N	○		관례			관례		○	○				○
계	11	3		1	6		1	13	11	2	1	1	13

* 약어 : K는 KCR, A는 AACR, KOR은 KORMARC, US는 USMARC 혹은 MARC21.

표목의 형식에 대하여는 KCR1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1개관, AACR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6개관 나머지 7개 도서관은 관례에 따른다고 하였다.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칙을 갖고 있는 AACR2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도 5개 도서관은 표목의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AACR이나 특정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관의 관례를 따른다고 하였다.

전거파일의 활용 여부에 대하여는 14개 도서관 중 1개 도서관만이 자관의 전거파일을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3개 도서관은 전거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MARC포맷은 1개 도서관만 KORMARC를 사용하고 나머지 13개 도서관은 USMARC이나 MARC21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3. 비도서자료 편목에서 표목의 취급 실태

비도서자료 편목에서 기본표목 채택 여부를 포함한 표목의 취급 실태, 사용 목록규칙은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1개관을 제외한 조사대상 도서관 모두 비도서자료의 편목에도 도서자료에 준하여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비도서자료 편목에서도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기본표목의 선정 및 표목의 형식에 동양서와 서양서 각각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서자료에서도 1개관을 제외한 전 도서관에서 전거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비도서자료 편목에서 기본표목 채택 여부와 표목의 취급 실태

항 목	기본표목 채택 여부			표목형식 결정 규칙		전거파일		목록규칙	
	도서와동일	채택함	하지않음	도서와동일	기타	있음	없음	도서와동일	K4
계	12	1	1	13	1	1	13	13	1

* 약어 : K 는 KCR.

IV. 표목 취급의 문제점과 제안

1. 기본표목

동양서 목록의 경우 기본표목의 취급에 관한 도서관 간의 통일성이 없다.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은 규칙인 KORMARC기술규칙, KCR3, KCR4를 사용하는 도서관(12개관)들 중에서도 많은 도서관들이 여전히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표목 선택에 적용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관례에 따른다고 한 도서관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도서관과 채택하지 않는 도서관이 혼재한 상태이며 기본표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개별 도서관 자체뿐 아니라 도서관들 간에도 통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양서의 경우는 기본표목에 관한 규정을 가진 AACR2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많았으며 대부분 도서관에서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하게 AACR에 근거하여 기본표목의 선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례에 따른다고 답한 도서관이 많아 일관성과 통일성은 여전히 의심 된다. 뿐만 아니라 한 도서관 내에서 동양서와 서양서 간에 기본표목 채택 여부를 달리하는데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단위방식의 목록규칙을 표방하고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KCR3이 제정(1983년)된 지는 27년이 경과하였고 미완성판이었던 KCR3을 이어 완전판으로서의 KCR4가 제정(2003년)된 지도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표목의 취급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양서의 편목에서도 여전히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이 수적으로 많은 결과를 두고 볼 때 기본표목을 폐지한 KCR의 방침이 아직 도서관 현장에 완전하게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의 하나로 자동화된 목록 환경에서 저록의 작성에 필요한 또 하나의 규칙, 즉 KORMARC 포맷은 기본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1XX필드가 존속하고 있어 KCR4에 의해 KORMARC 포맷에 목록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이 필드가 공기호로 남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많은 도서관들이 서양서 목록에서 AACR과 USMARC포맷으로 작성된 외부의 목록레코드를 내려 받고 있어 서양서에는 기본표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서양서의 목록 레코드의 구

조에 동양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본표목을 존속시키고 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KCR4에서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하여, 자동화된 환경의 목록 검색에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기본표목의 채택에 수반되는 복잡한 규칙에 비하여 일관성의 유지가 어려운 것 등의 문제점과 AACR2를 대체할 RDA와 같은 표준의 변화 추이를 참고하여 도서관 현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될 KORMARC 1XX 기본표목필드의 활용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KORMARC 통합서지용포맷에서는 1XX 기본표목필드에 대하여 “저자주기입방식의 목록규칙(KCR2, AACR2)에서 사용하되 서명주기입방식의 목록규칙(ISBD, KCR3, KCR4, KORMARC기술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³³⁾고 하였다. 그러나 KCR4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표시기호 1XX는 사용되지 않는 공기호가 되어 기호의 낭비가 있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CR4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도 1XX 필드에 여전히 기본표목을 입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KORMARC포맷에서 1XX필드의 새로운 활용법³⁴⁾을 찾고 이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KORMARC포맷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CR4의 기본표목을 비롯한 표목의 형식에 관한 방침은 AACR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KORMARC포맷은 AACR에 의해 서지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 MARC21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KCR4의 목록체계는 근본적으로 KORMARC포맷과는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된다.

기본표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KCR4의 목록체계는 MARC21 보다 책임표시에 관한 표목을 7XX 필드에 모아 놓은 구조를 가진 UNIMARC³⁵⁾에 더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FRBR이나 RDA와 같은 서지적 표준들의 개발은 장차 MARC포맷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KORMARC 기본구조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국립중앙도서관 편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p.493.

34) 예를 들면, 김태수는 100필드에 접근제어 레코드번호(전자파일의 전자레코드 번호)를 입력하여 서지레코드를 접근제어 레코드와 연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태수, 목록의 이해, 개정증보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p.310.).

35) UNIMARC은 표목에 해당하는 필드로 5XX(related title block), 6XX(subject analysis and bibliographic history block), 7XX(responsibility block)를 두고 있으며 7XX에서는 70X 개인명, 71X 단체명, 72X 가계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는 주된 책임을 지는 책임표시사항(Primary responsibility)을 700(개인명), 710(단체명), 720(가계명)로 구분하였을 뿐 KORMARC이나 MARC21의 1XX와 같은 기본표목 필드를 따로 두거나 기본표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http://archive.ifla.org/VI/8/unimarc-concise-bibliographic-format-2008.pdf>> [cited 2010. 11. 4].

2. 표목의 형식

KCR3에서는 표목에 관한 규칙이 계획은 되었으나 결국 중단되었고 KCR4에 이르러서는 통일 표목을 위한 표목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게 되었다. KCR4에 따르면 표목은 그 형식을 통일하거나 표기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문헌의 서지사항에서 나타나는 대로 입력한다. 그리고 검색을 위해서는 전거시스템에 의해 관련 표목 간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관련 표목들이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조사대상 도서관들 중 많은 도서관들은 KCR4의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표목의 형식은 여전히 KCR1이나 KCR2와 같이 전통적 통일표목 방식을 적용한 관례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례를 따른다고 한 경우에도 매뉴얼이나 내규로 성문화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때로는 KORMARC포맷의 입력 예시에 근거하여 표목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통일표목의 형식을 취한다고 한 도서관들도 표준적 규칙이나 성문화 된 매뉴얼에 따르기 보다는 막연한 관례를 따름으로서 개별 도서관 자체나 도서관 간에 표목 형식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KCR4의 방침이 아직 도서관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해되어 수용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통일표목을 규정하는 대신 검색의 효율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이 방안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KCR4의 방침대로 통일표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표목을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거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KORMARC의 전거통제용포맷은 아직 이에 상응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KORMARC 전거통제용포맷은 008 부호화정보필드에서 1XX 필드에 입력된 표목을 채택된 표목과 채택되지 않은 표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채택되지 않은 표목으로부터 채택된 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한 통일표목의 형식을 유지하도록 한 구조를 갖고 있다.³⁷⁾

또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관의 일부 표목에 대해 전거파일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극소수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완전한 전거파일이나 전거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은 없었다. 이 후에도 우리 도서관계에서 개별 도서관이 완벽한 전거파일과 전거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표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KCR4의 방침이 KORMARC포맷과 상호 정합되지 못한 부분

36) 이러한 전거형식에 대하여 김태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김태수, 전게서, p.309.). 전거 전거포맷의 1XX 필드에 해당서지기관의 디폴트형식을 입력하고 전통적인 전거형식을 4XX 필드로 옮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XX 필드는 전거형식이 아니라 표시용 '디폴트' 형식이며, 이에 따라 서지기관마다 1XX 필드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kormarc/ca_total.pdf> [인용 2010. 11. 4].

도 많다. KORMARC포맷의 표목과 관련된 필드들은 여전히 통일표목을 전제로 한 필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7XX 부출표목 필드들 중에서 '720 통제되지 않은 이름 필드'나 '740 비통제 표제 필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필드들은 원칙적으로 통일표목의 형식을 따르도록 설계된 것이다.³⁸⁾ '240 통일서명 필드' 역시 통일표목 형식에 해당하는 필드라고 할 수 있다.³⁹⁾ 뿐만 아니라 '6XX 주제명부출표목 필드' 역시 통일표목을 전제로 한 주제명 필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KORMARC포맷 표목 관련 필드들의 입력 요소들을 보면 각 종 표목 필드에 입력되어야 할 요소의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⁴⁰⁾ 그러나 기술규칙에서와 같이 이들 표목의 구성 요소를 입력하는 순서나 구두점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KCR4는 본래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KORMARC 포맷에서도 이에 대한 규칙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목필드의 입력 형식은 단지 KORMARC 포맷의 예시에 의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예시를 규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목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기술 순서나 구두점에 대한 규칙도 필요하다.

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 KCR4의 표목에 관한 방침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KCR4의 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전거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표목의 형식마저 배제된다면 목록 검색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KCR4에서 먼저 통일표목을 배제한 것은 그 순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SBD 제정과 함께 기술부만으로 저록이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ISBD는 그 자체가 완전한 목록규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SBD는 그 적용 문제에 관하여 'ISBD에 의한 서지기술은 완전한 서지레코드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통상 그 자체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⁴¹⁾고 명시하고 '표목과 주제 정보와 같은 완전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소들은

38) KORMARC 통합서지용의 720필드와 740필드의 '정의와 범위'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이 필드는 저작과 관련된 이름이 전거파일이나 전거리스트로 통제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목록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지 않은 이름도 기술할 수 있다.
 - 이 필드는 제어되지 않은 관련표제와 분출표제에 대한 부출표목에 사용한다.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표제가 전거파일을 통해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필드를 제외한 7XX의 각종 필드들은 전거통제에 의한 통일표목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 240 통일표제 필드는 한 저작의 여러 판 등이 여러 가지 다른 표제로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저록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특정 표제를 통일표제로 삼아 그 저작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된다. 통일표제의 적용은 목록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통일표제에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는 경우도 목록규칙에 의거하여 적용한다(국립중앙도서관 편저, 전게서, p.512.).
 40) 예를 들어 KORMARC통합서지용의 711 회의명부출표목 필드에서는 입력요소를 회의명, 회의장소, 회의일자, 회의단위, 저작연도... 등등 19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식별기호를 배정하였다. 또한 이들 각각의 요소를 일정한 순서와 쉼표, 콜론, 원괄호 등의 다양한 구두점을 사용하여 입력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전게서, p.861.).
 41) ISBD Review Group, recommen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 Preliminary consolidated ed.(München : K.G. Saur, 2007), p.0-4.

ISBD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요소에 대한 규칙은 보통 목록규칙이나 기타 표준들에서 제공된다'42)고 하였다.

IFLA에 의해 개발된 FRBR에서도 표목을 서지레코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다루었으며,43) JSC의 RDA에서는 우선 접근점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표목의 형식을 적용하였다. KCR4가 이러한 서지레코드 표준에 관한 국제적 추이를 어떤 형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그 과도적 시기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도서기호법의 문제

도서기호법 중에서 저자기호법은 대부분 기본표목을 기호 매김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표목의 채택여부는 도서기호 매김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조사대상 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을 동양서와 서양서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내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도서기호법 사용 실태

동양서			서양서				기타자료		
이재철	수입순	장일세표	Cutter	국립중앙	박준식표	Elrod표	동일	수입순	없음
10	2	1	12	1	1	1	9	3	2

* '이재철'은 한글순도서기호법을 포함한 이재철저자기호법 계열의 도서기호법.
 'Cutter'는 Cutter 계열의 도서기호법 .
 '국립중앙'은 국립중앙도서관표.
 '동일'은 도서와 동일.

<표 4>에 따르면 14개 도서관 중 동양서 편목에서는 2개관, 비도서자료 편목에서는 3개관이 수입순 도서기호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도서관에는 이재철 저자기호표, Cutter 저자기호표를 비롯하여 기본표목을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으로 하는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많은 도서관에서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 매김에서는 도서기호 사용법이 원칙대로 지켜질 수 없게 된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각기 사용하는 도서기호법의 표는 사용하되 기호 매김의 방법은 정해진 원칙

42) Ibid.

43) FRBR의 연구진은 서지레코드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서지레코드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기술요소와 조직요소 두 부분으로 정리하였으며 조직요소에는 이름표목, 표제표목, 총서표목, 주제명표목/분류기호를 포함시켰다. IFLA Study Group on the FRBR 편, 서지레코드의 기능상 요건, 김태수 역(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3), p.121, <<https://naver.nanet.go.kr/dl/CommonView.php?u=3DcKGXb06hNq98dyZlbGSLW%2FOTTUqOcXgLHsneor0qKRUPv57lr9YVI5tEfuFnDhd0QDUcaGIGPw7Y11ismJnw%3D%3D>> [cited 2010. 12. 13].

에 의하지 않았으며, 주로 첫 번째 기재된 저자명에 의해 기호를 부여하고 저자명이 없을 경우에는 출판사명에 의해 기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재철 기호법이나 커터 기호법은 기본적으로 기본표목이 되는 대표저자명이나 서명을 기본기호 매김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문헌의 서지적 특성을 도서기호에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 즉 도서기호법에 정해진 도서기호 매김의 규정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도서관마다 자관의 방침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을 중시한 저록에서 가장 우선적 식별요소로 취급되는 표제(서명)는 대부분 도서관의 기본기호 매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자기호법에서는 전기서나 비평서, 주석, 특정 성씨의 계보와 같은 자료들은 이러한 자료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군집하기 위해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도서기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밀한 원칙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고 기술부만으로 구성된 저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연구와 도서기호법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도서관 현장의 편목 과정에서 기본표목을 비롯한 표목의 취급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표준목록규칙인 KCR4는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고, 통일표목의 형식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관례에 따라 여전히 기본표목을 채택하거나 표목의 형식도 통일표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표목에 관한 한 도서관 현장의 실태는 무원칙으로 인한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다양성의 조화가 덕목이 되기도 하지만 도서관 목록에서는 여전히 통일성과 표준화가 강조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목록의 표준화와 통일성은 목록 레코드의 공유나 검색 효율의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본표목이나 표목 취급방식의 통일 역시 목록레코드 표준화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KCR4가 지향하는 기본표목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방침 역시 도서관 현장에 폭넓게 수용됨으로써 목록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SBD 보급과 더불어 도서관 목록에서 기술부에 비하여 표목부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ISBD는 스스로 그 자체가 완전한 목록규칙이 아니며 통상 그 자체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IFLA에 의해 개발된 FRBR JSC의 RDA에서도 표목을 서지레코드의 일부로 포함시켰으며 특히 RDA에서는 우선 접근점을 구분함으로써 통일표목의 형식을 사용하였

다. 향후 KCR4가 어떤 방향으로 목록규칙의 국제적 추이를 수용할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표목 취급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ORMARC포맷은 AACR에 준거한 MARC21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KORMARC 포맷과는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FRBR이나 RDA와 같은 서지레코드의 새로운 표준들이 출현함으로써 MARC포맷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KORMARC포맷의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법을 본래의 사용 규칙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기호가 문헌의 서지적 특성을 표현하거나 도서관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본표목을 채택하지 않고도 저자기호법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기호표나 사용법의 개발도 당면한 과제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